



중국 포장교육의 발전과 현황

The packaging science education in China

차 경 호 / 연세대 패키징학과 박사후 연구원

1. 서론

중국의 포장교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약 30년의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 80년대 초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발전정책에 힘입은 경공업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은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포장산업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포장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고, 중국에 ‘포장공정’이란 전공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중국 포장교육은 당시 중국포장기술협의회(현 포장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82년부터 실시된 단기연수와 같은 비정규교육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1984년 처음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3년제 전문학사과정과 고등학교에 준하는 정규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이듬해부터 220명의 전문학사과정생과 1,393명의 고등학교 과정생이 처음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의 포장교육은 50년대 이미 포장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미국이나 기타 유럽국가와 비교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30년에 가까운 노력 결과 현재는 약 60여 개의 대학에 포장공정이란 이름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매년 여기에서 배출되는 학사졸업자가 3,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각종 포장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비정규 연수과정의 종류와 그 수료생은 숫자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

1. 중국포장교육 발전사

중국의 포장교육 발전사는 1980부터 1985년까지는 준비단계, 1985부터 1995년까지는 포장교육의 보편화와 인지도 향상단계, 1995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발전 속에 조정과 포장교육의 저변확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1980년~1985년

이 기간은 향후 중국 포장산업의 발전이란 명분하에 포장교육의 중요성을 사회 지도층에

인식시켜 발판을 마련하고 시작하게 만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80년 12월 제1회 중국포장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향후 포장교육의 중요성을 사회 각계각층에 인식시켜 이를 실현하는 것이 협의회와 중요 사업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는 1981년 5월 국가경제위원회를 통해 국무원에 중국포장총공사(이하 총공사) 설립 안을 제출하게 된다.

총공사의 설립목적과 임무 중에는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관리층과 기술인력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곧이어 1981년 7월 국무원은 총공사의 설립을 허가하며 향후 총공사는 포장전문 인력양성에 모든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때 총공사는 포장산업의 저변확대의 방법으로 1982년 9월 제1회 전국포장전람회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5년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포장관련 전람회가 약 200회 가량 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를 창간하여 포장산업의 저변 확대와 포장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도록 했다.

1982년 협의회 산하 포장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중국의 포장교육 실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83년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포장교육위원회 간부와 회동에서 경공업, 식품가공업이 발달한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특히 연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포장방면의 고등교육이 절대 필요함을 시사하였고 1984년 4월 중국교육부는 드디어 포장공정을 시범전공

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서북경공업학원에서 열린 “중국 포장교재 편집위원회 성립대회”에서 13가지의 교과과정을 정함과 동시에 교재의 주요 내용을 협의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85년 ‘포장공정’이란 이름의 중, 고등 정규교육 과정이 시작되었다. 또한 중국포장공정학원의 설립을 위한 노력도 이 해부터 시작되어 1989년에 국가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주주공학원(株州工學院)이란 이름으로 개교하였으며 2006년 호남공업대학(湖南工業大學)으로 개명하였다.

1-2. 1985년~1995년

이 기간은 중국의 포장교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협의회 지도층의 관심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포장산업의 발전으로 포장전문 인력의 수요가 늘면서 포장공정 전공을 설치하는 대학도 그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포장교육의 발전은 1992년 ‘포장공정’이 더 이상 시범전공이 아닌 교육부의 정식 전공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3년제 포장공정 전문학사 과정이 4년제 학사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단기연수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이러한 포장교육의 양적 증가는 포장교재 및 교과과정의 개선을 촉진시키게 되어 대학들이 좀 더 향상된 포장인재 교육을 위한 포장공정 전공의 대학원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1-3. 1995년 이후

이 기간은 포장교육의 발전과 조정을 거치는 시기로 1996년 4월에 열린 제14차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회의 결과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 석, 박사 교육 및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실시된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전체 전공 조정 후 포장공정 전공이 식품과학 및 공정 전공에 편입되면서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는 석,박사의 학위수여가 다시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포장공정을 전공했던 대학원생은 기계, 식품 혹은 제지공정이란 다른 전공과목명으로 학위를 받아야만 했었다. 이러한 형태의 대학원 교육은 실재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이수함으로 시간낭비를 초래하였고, 졸업 후 구직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2002년을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원 학위위원회는 경공기술 및 공정이란 전공이 개설된 대학에 한해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 석, 박사 학위 수여를 허가하였다.

현재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 석, 박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는 대학은 천진과기대학과 강남대학이 있다. 포장교육과 관련된 단기연수과정의 발전은 포장에 대한 이론과 지식만 습득하던 단순 연수에서 일정기간 과정을 수료하면 특정 단체에서 발급하는 포장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2. 중국 포장교육 당면 과제

중국의 포장교육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미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 초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포장교육 관련인사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2-1. 포장교육의 전통성 및 체계성

중국이 포장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포장을 전공한 전공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기계나 식품 등의 타 전공자가 자의든 타의든 포장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하나의 학문에 전통성과 체계성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공자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중국 포장교육의 시작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확실한 포장교육의 체계성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의 짧은 포장교육 역사로 인해 포장전공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1998년 전공 개편을 통해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 석, 박사의 학위수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의 포장학은 이미 양적 팽창을 거쳐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포장전공자의 부족은 아직도 많은 대학으로 하여금 타 전공자를 포장교육의 일선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다 보니 포장학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고 전공자들이 걸으려는 포장학을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분야로 전이될지도 모르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포장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학문간의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 걸으로 보기엔 포장관

런 타 전공자가 포장학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포장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교차학문을 판단하는 것과 타 전공자가 포장학을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같은 현상이나 문제점을 보고도 포장 전공자가 판단하는 결과와 타 전공자가 판단하는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문의 기초와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결과 도출이 다르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유로 중국 포장학은 아직 타 전공과 비교해 전통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나마 2002년 전반적은 아니지만 포장공학으로 학, 석, 박사까지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이수한 인재가 향후 포장학의 전통성과 체계성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2. 중국 포장교육의 발전 속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내수시장의 개방은 중국 상품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게 만들었다.

WTO 가입 초기에는 오직 상품 자체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제는 상품의 품질 외에 디자인, 포장 및 물류합리화 등으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포장산업을 발전을 촉진시키고 더불어 포장인재의 수요까지 급증시켰다.

포장산업의 발전은 우수한 인력이 기반이 되는 만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이미 매년 3,000명이 넘는 포장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시장의 규모나 다양성에 비해 아직도 포장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은 포장전문 인력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아직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는 포장교육의 학문적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이 오직 학문적 측면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포장산업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포장전문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포장교육의 발전속도가 편승하지 못하면 포장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향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교육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보다 한발 빠르거나 최소 같은 속도를 유지해야만 정상적인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중국 포장교육 발전 방안

중국의 포장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고 있고 향후 중국 포장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3-1. 해외선진 포장교육 인재 활용

현재 전공자의 부족과 불합리적인 중국의 포장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선진 포장교육을 받은 인재를 받아들여 선진국의 포장교육 과정을 중국의 실정에 맞게 개선시켜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실행하여 학문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선진국의 좋은 산학연계나 기업과의 협력의 선례를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입하여 중국 포장교육에 산학연이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중국 포장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 외 국내 전공자들의 해외 연수, 유학 및 교환학생 등의 기회를 넓혀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의 포장교육 시스템을 접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수한 포장전공자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서 중국 포장교육의 앞날을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3-2. 포장교육의 체계 개선

언급한 바와 같이 포장공정 학사과정 외에 아직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석, 박사과정까지의 체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포장전공자가 포장공정이란 이름으로 석,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함에 따라 포장에 대한 열의와 심취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포장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포장

공정이란 이름으로 석,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서 중국의 포장교육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추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 더 많은 선진 실험실습 기자재를 도입하고 연구소의 설립하여 전공자에게 좀 더 많은 실험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수한 포장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3-3. 실무형 포장인력 양성

경제와 산업의 발전은 기업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기업 생존은 기술력과 인재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기업의 기술력의 원동력은 바로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교육의 방법과 수준이 좌우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연구와 교육의 수준이 떨어지면 바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또한 저하된다.

포장산업 역시 이러한 경쟁구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중국의 포장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기업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포장 전공자에게 더 많은 실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에도 적극 참여시켜 실무형 포장인력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기업은 실무교육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업이 나 혹은 단체와 협력하여 포장학교를 설립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교육시키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교육해 낼 수 있는 교육 이것이 바로 현대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인재가 있고 산학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쓴다면 중국 포장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결론

본 고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중국이 얼마나 포장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다.

약 30년간의 노력으로 현재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으나 아직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포장교육 발전은 지도층의 절대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비록 중간에 한번의 전공 조정으로 위축은 되었지만 그 후 관련 인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중국의 포장학은 향후 틀림없이 중요 학문으로 인정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체계화된 학, 석, 박사 교육이 보편화되어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를 완성시켜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어 교육의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더 나아가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중국 포

장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의 중국 포장교육은 양적 팽창을 해왔고 더불어 연구개발 보다는 학문 자체로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 포장교육은 이미 많은 자체 개선을 통해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고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산학의 협력까지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60여 곳 혹은 앞으로 생겨나게 될 더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포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에 선의의 경쟁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 포장산업의 기술력과 인제는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

독 자 권 령 모 정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